




Vol. 1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본부



강유정, 남소영, 박명훈.
박여진, 이호성, 정지환



Contents

여는 글

아름다운 이별, 연명치료

의료인으로서의 연명치료 - 박여진, 강유정

의료 전문기자 되기

오늘도 그들은 기자가 되어간다 - 박명훈

우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 정지환

의사이드아웃

<영화와 인간심리>조의 첫 걸음 - 이호성, 남소영

여는 글

어느새 낙엽이 바스락 거리는 가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몸을 한껏 움츠러들게 만드는 계절이지만, 의학도들의 학구열로 의과대학은 뜨겁기만 합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며 지식의 새싹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의학이 의사로서의 실력을 키워준다면, 인문학은 좋은 의사가 되는 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감정이 없는 의술은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인술로 거듭납니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의료인문테마스쿨 시간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주어지는 따스한 햇빛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저희 조는 예술부터 사회까지 전 범위를 망라하는 인문학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각 조들의 활동을 취재하고, 조원들과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몇 장의 사진을 더 얹어서 이 시간을 잡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조들의 활동을 체험하고, 자신의 활동 기록을 돌이켜보며 또하나의 추억으로서 새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저희 조만의 노력이 아니라, 의료인문테마스쿨 모든 조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기사가 마음에 꼭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취재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모든 교수님들, 기사 쓰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조원들, 그리고 조의 지도교수 박윤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11-06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이호성

아름다운 이별, 연명치료

의료인으로서의 연명치료

박여진, 강유정 기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는다. 어떠한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이별도 있다.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김지연 교수님과 조원 5명은 (김민석, 김재욱, 이상민, 최우석, 하태현) 이 답을 찾아 나섰다. 이 조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세 명의 환자들의 Case report에 참여하고, 직접 환자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기자들은 연명치료를 받는 Case를 취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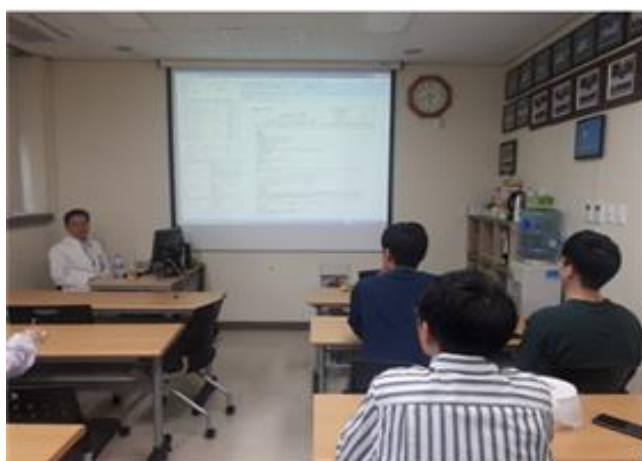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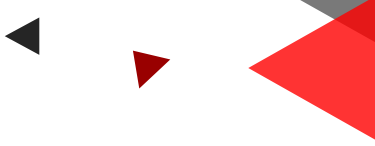


사진1. 교수님과 Case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학생들

연명치료는 의학적 판단하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오로지 생명 유지만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의, 혈액 투석을 통해 신장이 망가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이끄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대척점에 있는 셈이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1~2주면 돌아가셨을, 그러나 연명치료를 통해 4개월간 생존하신 환자분의 Case를 보며 조원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남아있는 사람에게의 마지막 모습은 내 자신이 정하고 싶다’, ‘남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싶지 않다’ 등의, 연명치료를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비쳤다. 교수님은 이러한 학생들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반드시 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옛날에는 ‘손가락 놓으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자들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했다고 한다. “집 갈 때 까지만 숨쉬게 해주세요” 라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앰부백*을 잡고 집까지만 간 뒤, 호흡 정지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셨다고 한다. 말하자면 암묵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셈이다. 이 합의가 깨지게 된 데에는 <보라매병원 사건>의 영향이 컸다. 교수님은 <보라매병원 사건>과 함께, 2009년에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연세대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1997년 12월 4일, 한 환자가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환자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Hemorrhage trauma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담당 의사들은 처음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지속적인 보호자의 요구 끝에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인공호흡기를 떼지 5분만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이후 환자의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환자의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병원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2008년 2월 김할머니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와 같은 영양제공을 제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며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 후에도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 앰부백 : 수동식 인공호흡기.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이 판례는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환자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김지언 교수님께서서는 공부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당부하셨다. 의료인으로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환자가 고통 받는 시간만을 늘릴지도 모르는 연명치료를 하는 데에 있어 신중해져야 하며, 환자와 가족들을 배려하며 그 순간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다음은 교수님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교수님** : 올해 면허생활 30년째 연명치료를 하면서 ‘왜 이 힘들고 무의미한 일을 계속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처음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저 생각 없이 했다. 그러나 몇 달 더 끈다고 해서 환자가 소생하지는 않는다. 이미 몸이 다 망가진 환자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CPR을 하면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피가 낭자한 모습은 가족들도 보기 힘들어한다. 어차피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의사들도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 : 부모님이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자식이 될 텐데, 부모님을 떠나 보내는 것에 대한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실제로도 보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 **교수님** :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뛰고 있는 타인의 심장을 멈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리 없다. 본인이 결정하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환자가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스위스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하다.

*적극적 안락사 : 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혹은 질병상태가 아님에도 독극물 등을 주사해서 죽는 것.



사진2. 연명치료 환자를 보기 위해 병동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 그럼 아직도 환자 자신의 의견, 또는 환자 가족들의 의견이 있어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갖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면 연명치료 중단 또는 유보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자세한 정보 - 국립연명의료기관(www.1st.go.kr)]
- 의사는 모든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 환자들이 이별을 대하듯, 의사 또한 이별을 대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의학도로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보자.

<영화와 인간심리>조의 첫 걸음

남소영, 이호성 기자

9월 11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회의실. 회의실 내에 감도는 날카로운 긴장감에, 또 비장함에 손가락이 베일 뻔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준원 교수님과, 교수님이 이끄는 조원들, 본과 1학년 이윤상, 배동진, 서성민, 김기훈, 은지환 학생이 모였다.

<영화와 인간심리>조의 주제는 '영상'. 오늘은 저번주의 오리엔테이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시간이다. 첫 번째 화두이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영상 촬영을 주제로 할지, 아니면 영화 감상과 토론을 주제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전에 치열한 토의를 거쳐 미리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영화 감상과 토론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영화 감상과 토론, 15학번 선배님들과는 다른 길이다. 그렇기에, 방향을 확정 짓기 전, 15학번 선배님들이 촬영한 영상 감상으로 시작되었다. 선배님들은 영상 속에서 다양한 정신병 증상들을 열연했다. '발표에서 각각의 병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교수님의 설명 속에서 영상의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추구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조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영화 감상 속에서도 정신의학적인 관점으로 감상해보기로 정하였다.

이후로, 조원들은 각자가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 모두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갔다'라는 선정 이유를 가진 <그녀에게> (이윤상 학생), 23개의 인격의 대립이 인상 깊어서, 정신의학적 관점으로도 감상하고 싶다는 <23 아이덴티티> (김기훈 학생),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 <뷰티풀 마인드> (은지환 학생),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미지를 정립시켰다고까지 평가되는 <양들의 침묵> (배동진 학생), 예과 1학년 시절 본교의 교양 수업인 심리학 수업에서 보고 인상 깊었다는 <인사이드 아웃> (서성민 학생)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진1.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학생들

각각의 영화가 나올 때마다 교수님은 해당 영화가 어떤지에 대해 짚막하게 평을 남겨주셨다. 미리 정해놓은 목록이 아님에도 <그녀에게>를 제외한 모든 영화를 이미 보셨다. <23 아이덴티티>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지적을, <양들의 침묵>에서는 과연 실제 사이코패스는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등, 교수님의 영화에 대한 열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는 정신세계를 친근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아, 전-자아, Long term memory, 망각 등의 개념을 정교하게 그려낸 좋은 영화라고 평하셨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교수님이 직접 영화를 선정해 조원들에게 별도로 알려주겠다고 하시고, 그 영화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을 진행하자고 하시며 이번 수업을 맺으셨다. 그 영화가 무엇인지는 기자들도 모르지만, 영화 마니아이신 교수님의 추천인 만큼, 개인적으로 물어봐서라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김준원 교수님 인터뷰

- **이호성 기자** : 교수님께서 이번 의료 인문 테마 스쿨에서 얻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 **김준원 교수님** : 학생들은 ‘정신 장애’ 라는 것들에 대한 편견이 많고, 정신 장애를 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하고 별난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 질환’이라는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단적인 정신 장애도 있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찾아보길 바랍니다.
- **남소영 기자** : 교수님은 학생들의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 **김준원 교수님** : 당연히! 무엇보다 적극성이지.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길 바랬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학창 시절일 때에는 이런 주도적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윤상 조장 인터뷰

- **이호성 기자** : 이윤상 학생은 이번 의료인문 테마스쿨 수업에서 김준원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윤상 학생** : 처음에 조를 선택할 때 아는 것이 심리와 동영상이라는 제목과 김준원 교수님께서 진행한다는 사실 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하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1학기 때 김준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아심리에 관련한 인간학 수업이 재미있었고 인상 깊어서 이 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남소영 기자** : 조장이자 조의 대표로써 각오는 무엇인가요?
- **이윤상 학생** : 의사가 되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 매일 많은 양의 수업을 듣고 매주 시험을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 인문 테마 스쿨이 그런 면에서 지친 조원들이 적극적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의료 인문 테마 스쿨도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조원들과 같이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지도 교수님인 김준원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성과 적극성을 담아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조장이 되어 좋은 활동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의료 전문기자 되기

Day 1

오늘도 그들은 기자가 되어간다

박명훈 기자

요새는 신문을 구독해서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신문을 받아보는 집이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신문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중에 하나이며, 시대에 흐름에 맞춰 인터넷 기사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에는 건강관련정보가 있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소개하여 앞으로 어떤 의료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수업을 듣던 중에 사실과 맞지 않게 너무 과장되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의료관련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 정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이게 되는지 조금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의료인문 테마스쿨 주제 중에 의료 전문 기자되기라는 제목을 가진 조가 있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찾아가서 취재를 하게 되었다.

‘의료전문기자되기’조는 신진철, 김도경, 정철환, 허준오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고석봉 교수님께서 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신다. 이 조에서는 주제에 나온 것과 같이 조원들이 의료 전문 기자가 되어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료관련 칼럼을 작성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의료 전문 기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선 대구의 매일신문사를 방문하여 의료 관련 기사기 어떻게 작성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신문사를 방문하여 부서별로 어떻게 나누어져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신문박물관을 견학하여 매일신문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후 기자님과 식사를 하며 인터뷰를 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에서 기자님께서서는 큰 방송국에서는 의학전문기자를 의사들이 맡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들도 있다고 하셨고, 후자의 경우 주변사람들의 경험이나 다른 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와 접촉하여 섭외한 후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원고를 받아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다고 하셨다. 하지만 원고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다시 연락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후 중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에 기고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 활동을 통해 '의료전문기자되기'조는 의료관련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이 되고 신문에 실려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다음으로 '의료전문기자되기'조에서 한 활동은 주제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교수님과 함께 최근 의료계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활동 중에 고석봉 교수님의 인터뷰영상을 보기도하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교수님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례를 이야기해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진1. 교수님과 함께 영상을 보며 토론하는 학생들과 기자들

다음 활동으로는 우리 병원에 원내 증례토의에 참가하여 우리가 배우는 의학이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방송국 방문, 주제설정 이후 우리학교 교수님들 중 몇 분을 섭외하여 인터뷰하기, 교수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료칼럼 작성하기 등의 많은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다.

취재를 하면서 의료 관련 기사를 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료 칼럼을 작성할 준비를 하는 '의료전문기자되기'조의 모습을 보며 발표 때 그들이 보여줄 결과물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었다.

의료 전문기자 되기

Day 2

우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정지환 기자

의대생이라면 중간고사 기간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유인물과 요약 정리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던 경험이 누구라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선배들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쳐나가 진급을 했는지 경이롭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지 못한 선배가 지금 내 옆자리에 동기가 되어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위기감이 들기도 한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책을 펼치고 필기 하나 없이 깨끗한 유인물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이걸 다 끝낼 수는 있을까?”

사실 의학에 있어서 정보의 양은 의사 본인이 얼마나 잘 환자를 볼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의대생이 환자를 보는 것과 경험 많은 고년차 전공의가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진 단에서부터 환자의 예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험 많은 교수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보고 환자를 치료하실까?



사진1. 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 중인 conference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10월 2일 의료인문테마스쿨 산부인과 고석봉 교수님 지도하에 “의료전문기자 되기 조” (조장 신진철, 조원 김도경, 허준오, 정철환)가 WFO consensus conference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부인과 교수님과 레지던트 선배님들 이외에도 외과, 핵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방문해주셔서 환자의 임상례나 치료에 있어서 경험적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인과 질환을 다양한 과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해나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다. 회의에 참석한 김도경 학생은 교수님이 수업 내용이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회의에선 실제 환자 사례뿐만 아니라 이론에서, 더 나아가 교수님의 소견,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어 새로웠다고 말했다. 열심히 필기까지 하며 회의에 집중했던 정철환 학생은 “비록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말로만 듣던 다학제 진료의 한 측면을 생동감 있게 체험한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사진2. Conference를 마치고 세미나실에서 나온 의료전문기자 되기 조.

의대생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돈다. 의학과 생활은 콩나물시루에 물주는 것 같다고.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게 되면 분명 물은 시루구멍 사이를 통해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다. 의학과 생활도 이렇다. 지금 당장 시험을 치는 이후부터 지식은 다 빠져나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conference를 또한 알게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의학도가 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본부



대구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16학번들의 이야기